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11 차 세션 , 새 언약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신약 신학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언약, 특히 새 언약에 대한 세션 11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등 다른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포괄적인 언약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떤 면에서 새로운 언약에서 일종의 포괄적인 것으로서의 성취를 찾습니다. 우리는 복음서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성취되는 것을 묘사하는 방식, 즉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서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 그분의 피가 새로운 언약을 비준하고 개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새로운 언약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예수님이 그의 백성에게 새로운 언약의 축복을 분배하기 위해 언약을 개시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서의 다른 여러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백성, 그 두 가지 주제로, 우리는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주제는 상당히 겹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나머지 신약에서 새 언약의 주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기시키기 위해, 우리는 이것을 여러 번 말할 것이지만, 상기시키기 위해, 새 언약과 그 축복의 성취는 시작된 종말론의 계획에 따라 일어납니다.

즉, 우리는 이미 새 언약 아래 언약의 성취와 축복에 참여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그저 흘러넘치는 축복이 아니라, 언약은 실제로 제정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러한 축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제정되고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새 언약의 최종적인 완성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둘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나머지 신약성경, 특히 바울 문헌에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것과 일치하는 새로운 언약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살펴보는 다른 몇몇 곳에서 여러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특히 새로운 언약 약속의 최종적 완성을 보여주는 두 개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그에 따라 일어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 신약의 다른 주제들, 그리고 다른 성경-신학적 주제들에서 본 계획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릴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언급할 많은 텍스트들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텍스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듯이, 이러한 주제들 대부분은 서로 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언급할 때 그것들을 분리하는 것은 종종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새 창조를 언급하는 이러한 텍스트 중 일부, 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언급하거나, 심지어 옛 언약이나 다윗 언약을 지금 우리는 새 언약의 맥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텍스트 중 일부를 다시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언급하는 중요한 텍스트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신약에서는 새 언약입니다.

저는 구약의 새 언약과 새 언약 본문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포함된 본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암묵적인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사용하지 않거나 언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거나 새 언약을 언급하는 구약의 구절을 언급하지 않는 본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 언약의 요소를 구현하는 듯합니다. 그들은 축복을 전달하거나 죄의 용서와 같은 새 언약의 축복을 다루는 듯합니다. 이는 저자가 새 언약을 받아들이고 있거나 저자가 묘사하는 이 축복들이 새 언약의 수립과 시작과 관련된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한 본문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그것은 고린도후서 3장과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1절과 몇 구절만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코 전체 장을 읽지 않겠지만, 바울이 분명히 활용하고 있는 첫 몇 구절만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듯이, 특히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과 37장에서 나온 언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과 1절부터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또는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우리의 편지이며, 우리의 마음에 쓰여지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온 편지인 줄 압니다. 그 결과,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사역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능력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글자가 아니라 영의 새 언약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습니다. 글자는 죽이고 영은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과 글자에 새겨진 죽음을 가져온 사역이 영광으로 왔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영광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더라면, 그것은 잠깐의 생각일 뿐이지만, 영의 사역이나 새 언약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정죄를 가져온 사역이 영광스러웠다면, 의를 가져온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의를 가져온 사역은 새 언약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웠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일시적인 것이 영광과 함께 왔다면, 그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우 담대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의 끝을 보지 못하도록 얼굴에 베일을 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인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같은 베일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말씀을 읽을 때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습니다. 17절과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주님은 영이시며,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베일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점점 더 커지는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에게서 옵니다. 이제,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는 이 본문과 우리가 살펴본 다른 본문에서 자세한 해석을 하고 이 구절에 대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답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에서 새 언약과 관련된 몇 가지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본문의 부담은 바울이 옛 언약의 사역자였던 모세와 유사하게 새 언약의 사역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모세와 비교하고,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주었지만,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 언약의 영을 중재합니다. 그러니 주의하세요, 율법이 행한 것과 모세의 사역 하에서 율법이 성취한 것 사이의 비교와 대조를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의 뛰어난 위대함과 영광을 주의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예, 옛 언약과 관련된 영광이 있었지만, 바울이 자신을 중보자로 보는 새 언약과 관련된 영광보다 얼마나 더 큰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모세 사이에 비교 대조를 설정하고 있는데, 모세는 옛 언약의 사역자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사역자이자 중보자로 보고 있으며 , 특히 성령의 임재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에 대한 언급은 요엘 2장과 에스겔 36장과 같은 신약 본문을 떠올리게 하는데, 성령이 부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 주제로 돌아올 것이지만, 하지만,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대한 언급을 볼 때, 고린도후서 3장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 의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서도 , 궁극적으로 구약성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 저자들이 갑자기 강조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약속의 성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모세가 옛 언약의 목회자였던 것과 유사하게 새 언약의 목회자로 봅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의 사역은 예레미야의 사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바울이 3장에서 말한 내용의 대부분은 예레미야서, 특히 31장, 새 언약 구절에서 가져온 언어에서 따온 것이지만 ,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위에 대해 다소 거침없이 자랑하더라도, 주님은 사도들을 우리에게 허물기보다는 세우기 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우고 허물어뜨리는 그 언어는 실제로 예레미야서 1장 맨 처음에 나오는 예레미야서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

선지자는 9절과 10절에서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을 만지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오늘 보라, 내가 너에게 민족과 왕국을 가리키니,

뽑아내고 허물며, 파괴하고 넘어뜨리며, 세우고 심으라. 하지만 이제 바울과 그 중 많은 부분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이스라엘과 민족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했지만, 또한 새 언약에서 회복에 대한 즉각적인 약속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자신의 사역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주로 세우는 것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 언약인 성령을 중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허무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이 시작되었고 그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새 언약인 성령을 중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전체에서 다시 한번, 기록된 율법에 초점을 맞춘 옛 언약과 대조되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돌에 쓰여진 언어와 돌에 새겨진 글자의 언어 7절, 심지어 잉크로 쓰여진 언어, 이, 이, 판에 쓰여진 언어, 이것은 옛 언약을 가리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로 증명됩니다.

바울은 율법이 죽인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은 새 언약, 성령에게 생명을 줍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잠시 후에 그 언어가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이나 37장과 같은 새 언약 본문으로 바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3장, 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우리 사역의 결과임을 보여 주노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모세의 율법처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설명할 때, 분명히 에스겔 36장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언약입니다. 나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레미야 31장과 새 언약 본문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이 구절에서 새 언약은 분명히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과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새 언약 사역의 중심에는, 새 언약의 중심에는 바울이 묘사한 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서 바울이 섬기는 새 언약은 글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글자는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7절에서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돌에 글자로 새겨진 죽음을 가져온 사역이 영광으로 왔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수 없었다면, 8절, 영의 사역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8절. 그리고 베일을 벗은 얼굴로 있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영광을 목상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커지는 영광으로 변화합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생명을 주는 영은 바울의 새 언약 이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이 구절에서 바울은 새 언약 시대의 시작에 대한 증거가 그것에서 비롯된 변화된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변화된 삶 속의 변화된 삶은 새 언약 시대가 에스겔과 예레미야에 의해 시작되고 성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다시 한 번, 우리는 이미 이 본문들을 읽었지만, 다른 것들과 연관해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바울이 에스겔 36장과 25, 26장에서 이 중 여러 가지를 명시적으로 암시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깨끗한 물을 뿌려 너희를 깨끗이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너희의 더러움과 모든 우상으로부터 깨끗이 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나는 너희에게서 돌의 마음을 제거하고 살의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 심장의 언어, 돌의 마음과 대조되는 살의 마음, 돌과 영의 대조,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 메모에 비추어, 다시,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

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일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 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곧 영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적어도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변형을 영의 수신과 연결시키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의 백성에게 두실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정화에 대한 에스겔 36장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연결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그는 우리를 글자가 아니라 영의 새 언약의 사역자로 유능하게 하셨습니다 . 글자는 죽이지만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 장, 31장, 34장에 대한 명확한 암시이며,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그의 영을 부어 주시거나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며 우상 숭배와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핵심 특징은, 아니면 다른 핵심 특징이라고 해야 할까요,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핵심 특징은, 원래 에스겔 36장과 예레미야 31장의 맥락에서 국가적 이스라엘에서 성취되었거나 성취될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에스겔 36장과 예레미야 31장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맥락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약속과 본문들이 국가적 이스라엘에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벼운 성취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도록 확장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원래는 이스라엘에 적용되었지만, 이제 확장되어 이방인들을 포용합니다.

우리는 주제,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과 다른 신약 저자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핵심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래에서 더 충만하게 발전할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핵심 중 하나는 신약 저자들이 이러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먼저 성취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도 이것을 볼 것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먼저 성취됩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새 언약을 비준하고 개시하고 제정합니다.

그의 백성도 그때 새 언약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들의 덕분으로 그들 안에서, 그들을 위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이나 고린도후서에서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이 새 언약 본문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국가적 이스라엘에서가 아니라,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새 언약의 마지막 특징은 우리가 이미 몇 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살펴본 부분으로 넘어가면 ,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살펴볼 사실인데 , 바울이 새 언약에 대한 논의가 하나님이고 가운데 거하시는 언약 공식에서 절정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사이에 무슨 일치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 가운데서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 주제와 관련하여 이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언약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의 새 언약에 대한 논의는 이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거하는 언약 공식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본문은 아마도 레위기 26장과 에스겔 37장 26절과 27절을 합친 것일 것입니다. 이는

에스겔이 새 언약의 시작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나오는 언약 공식인데, 바울이 이미 3장에서 암시하고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에스겔 37장을 다시 꺼내어 그것을 암시하거나 실제로 새 언약에 대한 그의 이해의 일부로 인용합니다. 새 언약의 일부는 이제 하나님께서 거주지를 정하고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전 주제에서 물리적인 성전 구조가 아니라 백성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읽었습니다. 18절에서 두 절 아래로 내려가면, 바울은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는 실제로 사무엘하 7장을 이사야의 본문과 결합했지만,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의 독특한 점은 바울이 다윗 언약 공식을 이 시점에서 예수에게가 아니라 그의 백성, 그의 추종자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흥미롭게도 바울이 제안하는 것은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새 언약의 수립은 이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방식은 새 언약의 수립의 맥락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수함의 맥락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6장에서 이 본문들을 인용한 이유는 독자들에게 영적으로 부정한 자들과 분리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했듯이, 새 언약이 실현되었다는 핵심 특징, 핵심 증거, 핵심 표식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과 그들의 순수함입니다.

에스겔 36장과 예레미야 31장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죄에서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악함과 우상 숭배에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의 영을 그들

안에 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누군가가 새 언약의 구원에 참여한다면, 누군가가 새 언약의 성령을 받았다면, 필연적으로, 그는 변화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고, 변화된 삶에서 그것을 본보기로 삼고, 순수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은 바울이 새 언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많은 다른 말을 할 수 있지만, 고린도후서에서 충분히 말했듯이, 새 언약은 바울에게도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 백성이 구원을 소유하고 변화된 삶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그가 그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거룩함과 순수함, 그들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와 역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 언약의 구조에 속하며, 이제 그의 백성도 그것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3장은 명시적인 본문이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새 언약을 언급하는 명시적인 본문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새 언약의 축복이나 요소를 다시 한 번 언급하는 암묵적인 본문 몇 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나 새 언약 언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새 언약의 임재와 성취를 확실히 가정하는 듯합니다.

그 중 하나는 바울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형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한 가지 중요한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다시 언급하지만,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개념과 본문, 특히 이사야서의 특정 본문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사야서의 그 본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맥락에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있는 본문들을 언급하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사야가 기대했던 약속된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는 이사야가 기대했던 약속된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로운 인류, 하나의 새로운 몸, 그리고 교회로

통합함으로써 이사야에서 기대했던 약속된 새 창조와 새 인류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로운 인류, 하나의 새로운 몸, 즉 교회로 통합함으로써 성취를 발견하는 회복 텍스트, 즉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끌어온 듯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입니다.

또한, 새 언약 공식과 매우 유사하며, 고린도후서 3장과 6장에서 발견한 것과 매우 유사하게, 에베소서 2:11-22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2:11-22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11-22에서 하나님의 성전 언약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회복으로 분명히 가정하는 듯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형성을 상상하는 다른 본문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아마도 새 언약의 시작과 확립을 가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새 언약의 본문, 특히 에스겔과 예레미야로 돌아가면,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의 맥락 속에 있고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형성되고 새롭게 되고 창조되고 회복되고 있다면, 새 언약은 시작되어야 하고 제정되어야 합니다. 새 언약에 대한 또 다른 암묵적인 언급은 바울이 죄의 용서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이제, 인용할 수 있는 본문이 많이 있지만, 이 주제가 문헌 전반에 걸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예를 하나 들자면, 3장 24절과 25절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23절에서,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구속을 통해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그리스도를 그의 피를 흘려 믿음으로 받을 속죄 제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관용을 베푸심으로써 이전에 지은 죄를 처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금 죄의 문제를 다루고 속죄의 희생을 통해 죄의 용서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것이지만, 분명히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 인류의 죄를 다루는 것, 그리고 새 언약의 약속의 성취를 뒷받침합니다. 더 명확하게, 갈라디아서 1장과 4절입니다. 저는 뒤로 돌아가서 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셨느니라.

그에게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개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시 한 번 새로운 언약의 언어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을 얻었으니 곧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죄 사함은 다시 한번 예수의 죽음과 그의 피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새 언약과 관련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의 서신이나 다른 신약 저자들이 서신 전반에 걸쳐 죄 사함을 언급할 때, 저는 그 바탕에는 죄 사함과 죄의 정화를 약속하는 새 언약의 시작과 확립이 전제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미 몇 번 언급했지만, 특히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이 논의한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암묵적 텍스트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제가 이미 말했듯이, 사람들에게 주어질 성령의 은사는 신약 성경 저자들이 갑자기 강조하거나 지금 중요한 새로운 계시를 받기 위해 발명하거나 결정한 교회 교리나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주어진 성령의 약속과 은사는 새 언약의 성취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바울이 약속된 성령을 새 언약과 연결시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의 다른 본문들도 그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은 전체 구절을 읽지 않겠지만, 훑어보면 성령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욕망을 생각하지만 성령에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욕망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본문에서 성령이 생명을 주는 것과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새 언약의 실체를 분명히 암시하는 것과 같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저는 그것을 읽지 않겠지만, 성령의 잘 알려진 은사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18절, 22-25절, 잘 알려진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13-14,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었고, 그분 안에서 인장으로 표시되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인장은 약속된 성령이시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구속하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업을 보증하는 증서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봉이라는 언어에서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용된 다양한 은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인봉에 주목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본문이 새 언약의 약속을 전제로 하고 그것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요엘 2장을 인용한 사도행전 2장도 새 언약의 맥락,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내용이며, 이는 에스겔 36장에서 발견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2장도 그러면 새 언약의 본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새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신약 전체에 걸쳐 성령과 그의 다양한 역할과 표현 등에 대한 언급이 아마도 모두 새 언약의 성취로 돌아가고, 적어도 그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구원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새 언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충분히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종종 이러한 것들 중 일부를 신약의 실체 또는 교회나 기독교의 실체, 구원, 구속, 바울의 서신에서 이미 읽었던 이러한 언어들, 성령을 받는 것, 의화 등, 우리가 종종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는 범주에 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새 언약의 시작과 성취와 별개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의 서신에서 벗어나 새 언약, 새 언약의 중요성, 그리고 새 언약이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의 시작을 가정하거나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나머지 서신들, 특히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에서 하는 역할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은 한 본문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에서 저자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자세히 인용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암시하는 바울과는 달리 히브리서 저자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자세히 인용합니다.

저자는 옛 언약의 부적절함을 보여주고 새 언약의 필요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옛 언약의 문제가 나쁘거나 사악하거나 죄가 있거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계획이 아니라 역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B 계획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악이었습니다. 옛 언약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반역과 죄를 다루고 극복할 내부 메커니즘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법을 두시고, 그들의 마음에 그의 법을 기록하시며,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실 새 언약을 세우실 날을 기대하고 예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 언약을 시작하셨다고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 특히 히브리서 9장부터 10장을 읽어 보면, 어떤 사람들은 8장부터 10장이 히브리서의 중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장들을 읽어보면, 새로운 언약이 성막과 성전과 희생과 신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주장은 그 중 하나에 변화가 생기면, 그 모든 것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다면, 새로운 성막 성전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희생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신권이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가져오는 새 언약 구원의 수립과 시작의 일부로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히브리서를 다른 여러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다른 두 가지, 종종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하고 언약과 새 언약 언어에 대한 여러 참조 사항 , 특히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참조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흥미로운 참조 사항 중 하나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발견되는 새 언약에 대한 참조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관찰을 스콧 하페만의 Central Themes in Biblical Theology라는 제목의 에세이 모음집에서 언약에 대한 기사에서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그의 신성한 능력은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부르신 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이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매우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악하고 정욕으로 인한 썩어짐을 피하여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선함을, 선함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서로 우애를, 서로 우애에 사랑을 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자질을 점점 더 많이 소유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비효과적이고 비생산적이 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질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적이고 눈먼 사람이며, 과거의 죄에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증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행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 주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으로 풍성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는 많은 것이 있고, 저는 이러한 단어들과 사물들 중 일부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지만, 하페즈가 주목한 것은 이 구절이 분명히 언약의 구조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을 확립하는 서론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공급 부분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여러분이 세상의 부패에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구절인 3절과 4절은 언약의 서론이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의 백성을 위한 그의 공급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언약의 규정은 5절에서 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신의 믿음에 이러한 것들을 더하고 궁극적으로 경건함을 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그것들을 소유한다면, 당신은 무능해지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은 언약의 약속과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 만약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행한다면, 기본적으로 만약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능해질 것이고, 당신은

근시안적이고 눈멀게 될 것이며, 당신이 당신의 죄로부터 깨끗해졌다는 것을 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풍성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고, 저는 이에 대해 논쟁하고 싶지 않지만, 하폐만이 이 경우 새 언약을 언급하는 언약 구조를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분리하거나 식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새 언약의 실체를 보여주는 또 다른 본문은 요한일서 전체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요한 1서는 내가 아는 한, 새 언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예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 36장이나 37장을 인용하거나 암시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언급한 개념 중 일부는 예레미야 31장 36절과 37절의 새 언약 약속을 다시 한번 가정하고 바로 거기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은 그의 책 전반에 걸쳐 죄 사함을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요한 1서 1장 9절인데, 그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깨끗이 하거나 정화한다는 언어는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의 새 언약 언어를 반영하거나, 적어도 반영하거나 가정하는 듯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며,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죄의 용서를 언급할 수 있는 다른 본문들이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인 본문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 1요한 3장 전반에 걸쳐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 1요한 3장 24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그는 그 안에 거하시니, 이로써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문자 그대로는 성령으로,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아느니라.

같은 본문의 4장 13절에서, 4:13, 이것이 우리가 그 안에 살고 그가 우리 안에 사는 것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 즉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변화와 그들이 사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의 삶 속의 성령의 실체가 구약의 새 언약의 실체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전반에 걸쳐 거듭남에 대한 언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장 9절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누구든지 계속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함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10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아는 방법이요, 마귀의 자녀를 아는 방법입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4장 7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5장 1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그의 자녀도 사랑합니다. 5장 4절에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5장 1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고 악한 자는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또는 태어나다에 대한 언급을 주목하세요. 이는 요한복음 3장과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한 것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거듭남이나 거듭남이라는 이 개념은 특히 에스겔 36장과 새 언약의 약속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요한 1서는 새 언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도 새

언약과 관련된 여러 축복을 담고 있으며, 이는 새 언약의 시작으로 인해 시작되거나 현재에 존재합니다. 죄 사함, 성령의 은사, 거듭남과 거듭남.

이제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또한 새 언약의 실체를 보여주는 여러 본문이 있는데, 이미 나타난 것과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모두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장 5절과 6절, 바로 책의 시작 부분에 있는 이 본문은 다른 이유로도 중요한데, 나중에 다른 주제를 논의할 때 살펴보겠지만, 5절부터는 뒤로 돌아가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이 책을 서신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서론의 일부입니다.

요한이 아시아 지방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 계시고, 전에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분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이 그림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새로운 백성을 회복하고 창조한다는 이 개념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그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새 언약의 수립이 시작되었음을 가정하고 상기시키는 듯합니다. 더욱이 5장 9절에서 우리는 정확히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언어를 5장 9절에서 보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당신은 합당하시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가져가 봉인을 여실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고 당신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들을 사는 이 아이디어,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고 이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백성, 모든 족속과 언어와 언어

등으로 이루어진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본문을 아주, 아주 빠르게 살펴보기 전에, 다른 몇 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언약의 맥락에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몇 가지 본문이 있고, 아마도 계시록 전체를 언약의 맥락에 놓을 수 있는 본문은 1장 3절과 22장 18절과 19절입니다.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것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마음에 새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문자 그대로,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지만, 특히 읽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발견한 것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맨 마지막을 보면, 종종 약간 오해받는 두 가지 흥미로운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1장 3절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제 나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묘사된 재앙들을 그 사람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두루마리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두루마리에 묘사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어떤 몫이라도 빼실 것입니다.

이제, 더하고 빼는 언어에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구절들을 신약이나 성경에 더할 책이 없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인용합니다. 또는 요한계시록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에 대해 두 가지 관찰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 구절들은 신명기에 대한 직접적인 암시처럼 보입니다.

신명기와 4장이 제가 원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4장, 1절을 읽어 볼게요. 이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법령과 율법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율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들어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신명기 12장에도 비슷한 본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점은 바울이 더하고 빼는 언어가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 22장, 18장, 19장을 1장 3절과 연관해서 읽어야 합니다. 1장 3절은 듣고 순종하는 데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22장 18절과 19절은 순종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저주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더하고 빼는 것이 문장을 더 쓰거나 책이나 단락을 빼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가 이 언약의 개념, 축복과 저주로 괄호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제 더하거나 빼는 자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 전체는 계시록에 있는 경고에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언약적 축복과 저주 의 맥락에 있으며, 특히 우상 숭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타협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그들이 받을 만한 배타적인 순종과 경배를 드리기를 거부함으로써. 더욱이, 22장 18절과 19절을 보면, 그것은 듣는 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듣는 자는 누구입니까? 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컬트나 거짓 종교에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새 언약이 수립된 이후에 그것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축복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못하는 것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 완성된 새 언약을 간략히 살펴보고, 새 언약과 매우,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언약, 특히 새 언약에 대한 세션 11입니다.